

國立公園 位相定立을 위한 提言



朴 萬 澈

〈國立公園管理公團運營部長〉

理想과 現實

國立公園은 國民에게 餘暇生活의 즐거움과 利用便益을 提供하는 公衆休息處로 國家가 指定, 保護 管理하며 後孫들도 利用할 수 있도록 毀損하지 않고 그대로 잘 保存하여야 한다는데 대체로 意見을 같이 하고 세계 각국이 國立公園을 指定 管理하고 있지는 保護優先이나, 利用을 위한 開發이나를 두고 意見이 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날 地球환경의 오염과 파괴가 중대한 危險要素로 우리앞에 나타나자 人間生存을 지켜야 한다는 긴박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서 便益爲主의 經濟的 利用開發을 경고하고 「우리들 共有의 未來」를 위한 生態學的 開發을 強調한 「持續的 開發」(Sustainable Development)에로 귀를 잡아야 한다는데 대체로 뜻을 모으고 있으므로 國立公園의 管理도 이런 方向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自然을 生命의 母胎요, 生態系의 허파로 우리가 숨쉬는 숨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自然風景地를 國立公園으로 指定, 管理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環境保存이 우리와 후손의 生存과 직결되고 있는 지금, 國立公園이야말로 우리의 生命력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후손에게 지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훌륭하게 保

護·管理하여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國立公園制度를 導入 國民의 保健, 休養, 情緒生活의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考慮한 自然風景地를 國立公園으로 指定, 國家가 保護育成, 管理하여 國民의 適正한 利用을 도모하도록 自然公園法을 制定 施行하여 왔으나 87年初까지는 地方自治團體에 委任分擔管理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 87년 8월 中央專門管理機關으로 國立公園管理公團을 設立, 國家直接管理體制의 기틀을 마련하고 國立公園管理의 位相定立과 定着化 段階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國民共有의 休息空間으로서의 國立公園을 國家가 責任 保護·育成, 管理하겠다는 강력한 意志의 表現일뿐 아니라 획기적 정책이라고 높이 評價, 환영을 받아왔다.

그러나 現實은 어떠한가. 利用하는 國民이나 地域住民이나, 地方自治團體나 할것없이 한결같이 經濟的 利己主義에 執着하여 商業主義의 慰樂, 觀光遊園地로 잘못 인식하고 商業販賣施設爲主 開發에 集中함으로서 國民의 휴식처는 먹자판, 출판의 무질서한 한마당 놀이터로 變質되어 行樂遊園地인지 國立公園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되어 버린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와같은 무분별 행위에도 불구하고 利用國民이나 住民의 잘못된인식을 나무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스스로 내버린 쓰레기와 무질서한 이용에 따른 오염과 훼손에 대해 남의 탓으로만 떠넘기는 우리의 자세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을 따름이다.

國立公園이 왜 利用하는 國民의 便益을 뒷전에 두고 地域住民便宜로 開發 管理되어야 하는가. 觀光團地로 助成하면 될 것이지, 왜 國立公園으로 指定하고 管理하는가. 國立公園으로 指定한 이상 國民을 위한 國立共有의 休息空間으로 保護, 利用, 管理하여야지 地域住民이나 地域의 特定目的을 전제로 管理되어서야 되겠는가. 物質的 欲求 充足手段으로서의 遊園地, 慰樂地라는 錯覺에서 깨어나 文化的 欲求 充足手段으로 나아가 國民精神 醇化場으로 國立公園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용, 보호하도록 함께 각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理想을 追求하고 現實의 오류를 끊임없이 改善해 나가는 國民만이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다. 健全한 文化를 창출하는 心身修鍊場으로서의 國立公園의 理想을 實現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

利用과 保護—管理

人間은 自然에서 태어나 自然으로 돌아간다. 高度의 産業社會에서 經濟的 欲求追求에만 몰두해온 人間은 自身을 잊고 自然을 잊어왔다. 技術 情報社會에 進入하면서 치열한 競爭에 지친 人間은 소외된 自身을 되돌아 보고 生命의 母胎인 自然을 회귀하기에 이르러 되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自然을 살리자 지구를 살리자」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自然에의 회귀는 바로 人間회복의 갈구이다. 自然만이 健康한 休息을 해결해 준다. 勞動力의 再生産도 自然의 休息空間에서 滿足스럽게 얻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男女老少할 것없이 한창 물밀듯이 산과 바다로 몰려가고 온다. 특히 國立公園을 選好하여 몸씨 몸살을 앓고 있다. 特別한 대체공간이 마련되지 않는한 國立公園의 探訪利用을 막을 方法이 없다. 최소한의 쉬고 즐길 수 있는 길과 空間 그리고 施設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國立公園을 指定 管理하여야 하는 사유가 여기에 있다. 探訪利用하는 者가 없으면 管理할 必要가 없고 國立公園도 特別指定할 理由도 없을 것이다.

國民의 健康生活과 勞動力의 再生産을 위한 휴양 휴식공간으로서의 國立公園이 가장 가치있는 資源임을 共感하는 이상 國民의 適正利用을 爲한 최소한의 利用便益施設은 마땅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公園에로의 接近手段을 정비해야 한다. 自然 探訪에 적합한 進入路, 駐車場, 散策登山路와 展望 施設을 配置하여야 한다. 山林, 溪谷地域은 原始野生 地域으로 保存하고 될 수 있는대로 施設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적정한 自然觀察探訪路와 森林浴場을 만들어 自然學習, 體力鍛鍊, 精神醇化場으로 活用하도록 하고 行樂施設이나 商業施設 그리고 피크닉이나 스포츠施設은 公園入口나 背後都市 또는 村落 주변에다 配置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自然이 演出하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조금이라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의 探訪客 利用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이 大別할 수 있다.

自然休息—피크닉, 캠핑, 하이킹, 등산등

名勝鑑賞—名勝景觀, 文化史蹟등

自然活用—海水浴, 낚시, 보트, 삼림욕등

施設利用—觀光慰樂, 놀이시설, 동식물원, 자연 학습수련장등

스포츠活動—수영, 테니스, 족구, 배구, 스키, 골프등

모든 欲求와 需要를 同時에 充足시켜 줄 수 있는 自然資源은 없다. 山林, 立地, 資源의 特性, 季節的 要因, 隣接환경등 自然의 人文의 환경에 대한 제반 與件을 조사 分析하고 未來需要를 고려하여 大多數 國民의 利用과 기능에 알맞도록 利用空間을 設計 配置하는 것이 좋다. 一時的 集中利用현상에만 급급하여 用途地域을 계획하거나 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오히려 自然훼손과 파괴를 심화시킬 뿐이고 얼마 안가서 後悔하게 된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用途地域계획, 利用계획, 시설투자계획 등은 최근의 급격한 生活樣式의 變化로 그 機能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새로운 계획은 未來需要를 고려한 「우리들 共有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資源保護와 合理的 管理를 전제로한 계획이어야 할 것이다. 利用과 保護는 相互條件的 補完的 均衡的이어야 하고 未來指向的이어야 한다. 便益施設은 保護가

전제되어야 하고 合理的 管理가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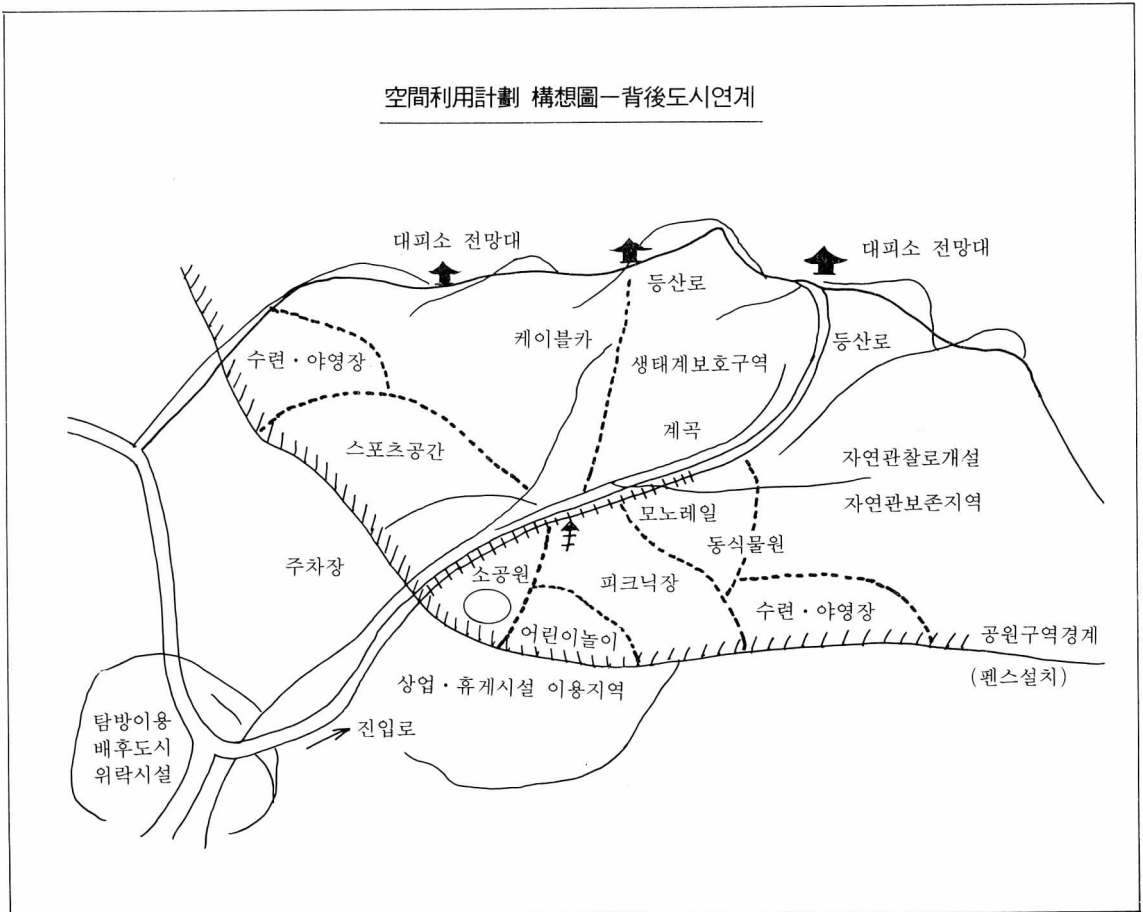
이와같이 利用과 保護 그리고 管理는 相互條件的이고 補完的이므로 相關關係下에서 計劃이 수립되고 기능이 이루어져야 한다. 「保護나 開發利用이나」라는 兩分法으로는 解答을 얻을 수 없고 桌上空論에 그칠뿐이다. 自然公園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나 재생활 수 없고 확대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 절대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의 人間은 自然의 파괴에만 익숙하여 본질을 외면할 때가 많다. 多樣한 現場 感覺과 綜合的 思考에서 출발하여야 利用, 保護, 管理의 均衡을 유지할 수 있다. 自然을 살려야 利用할 수 있다는 대전제에서 시작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인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용행태와 놀이문화 그리고 정책당국의 방침 등을 분석하고 국립공원의 관리자로서 3년여동안 경험하고 느낀 사실들을 종합하여 국립공원의 空間利用計劃을 나름대로 構想해 보았다. (構想圖)

이 구상은 보호를 전제로한 합리적 이용개발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한 것이다.

몇가지 提言

國立公園은 民族共有의 絶對資源이요, 子孫萬代의 휴식 휴양공간일 뿐아니라 民族精氣의 醇化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반



대인 경우가 많다.

國立公園은 어떤 個人이나 特定集團이 만든 것이 아니고 天惠의 資源으로 太初부터 거기에 있었다. 이러한 民族固有의 資源이 少數 特定人의 占有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居住住民만의 特別財產이나 地域開發의 對象物로서 利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法律上 所有權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單純한 占有에 불과한 것이며 經濟的 利用보다는 公共利用이 우선하므로 個人이나 特定人의 利益을 위한 管理범위를 벗어나는 公共管理資產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 住民이나 地域自治團體는 自身の 地域에 天惠의 民族共有휴식자원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긍지와 사명감으로 어떤 毀損에도 抗拒하여 永久保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 공유자원인 국립공원을 담보로 特定 利益事業을 벌여서는 안될 것이다. 國民의 利用便益을 위한 최소의 공공시설이나 사업만이 許容되고 其他目的의 행위는 일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나만의, 우리세대만의 것이 아닌 民族共有의 天惠의 資源이 어찌하여 놀이터가 되도록 둘 수 있는가. 어떻게 유원지화 하는 것을 방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모두 利己心을 自制하고 相互信賴를 회복하여 국민공유의 휴식휴양공간인 國立公園에 대한 잘못된 認識과 잘못된 利用을 바로잡고 새로운 意味를 부여하자.

- 국립공원은 慰樂遊園地가 아니고 精神醇化를 위한 휴양휴식공간이다.
- 國立公園은 「우리들 共有의 未來」를 위해 保護, 保存하여야 한다.
- 國立公園은 道德的, 精神的, 教育的 福祉와 삶의 즐거움을 포용하는 곳이고 貨幣로 尺度되거나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 國立公園은 所有主에 關係없이 民族共有資源이고 國家와 國民이 責任 管理하여야 한다.
- 國立公園은 公衆의 利用을 爲하여 保護를 爲提로한 最少限 施設을 開發 維持하여야 한다.
- 國立公園의 管理는 中央統制集中管理體制下에 專門管理機關이 擔當하여야 한다.
- 國立公園의 探訪利用은 申告制로 하고 公園守則을 制定 施行해야 한다.

○國立公園은 隣接都市 및 觀光地와 연계 利用될 수 있도록 特性을 維持하여 周邊을 開發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國立公園의 이용에 대한 새로운 餘暇活動文化의 창출에 노력하자.

현대 資本主義社會는 競爭의 原理가 支配하는 社會이다. 競爭은 協同과 相反하고 適者生存의 原理를 바탕으로 둔다. 社會는 核家族單位로 分化되고 치열한 경쟁으로 個人間, 階層間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競爭은 激熱한 感情과 行動을 誘發하고 자주 興奮하게 하며 葛藤은 自身을 壓迫하고 不安하게 한다. 따라서 알맞는 休息과 精神的 安定없이 경쟁에서 살아남 수 없게 된다. 現代人이 直面하고 있는 不安과 疲勞를 해소하는데는 自然과 더불어 呼吸하고 對話하는 方法外 特效藥이 없을 것이다.

國立公園이 바로 現代病을 治愈할 수 있는 훌륭한 名醫가 될 것이다. 신선한 空氣를 마시고 心身을 修鍊하여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를 말끔이 씻어내고 생체리듬을 되찾아 건전한 정신을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安息處로서 國立公園이 그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國家와 國民은 責任을 져야 한다.

요즈음 國立公園의 管理權문제를 도마위에 얹어 놓고 난도질 하고 있어 서글픈 생각이 든다. 國家와 國民의 이름으로 외치고 싶다. “國立公園은 地域의 占有物이거나 地域經濟開發의 對象이 아니고 「우리들 共有의 未來」를 위한 우리 모두의 資源이요 財產이므로 國家가 責任 集中管理하여야 한다”고.

모든 國民과 機關團體는 國家指定管理機關인 國立公園管理公團이 歷史的 使命感으로 철저히 무장, 아름다운 國立公園을 훌륭하게 보호하여 자랑스럽게 우리의 子孫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支援과 協助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國立公園의 참뜻을 定立하여 國家의 責任管理에 흔들림이 없고 문자 그대로 國立公園으로서 民族의 安息處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뜻을 같이하기 바라마지 않는다.

國立公園 保護運動이 全國民에게 擴散되어 民族과 함께 永遠하기를 빈다. (註: 筆者는 12月末

국립공원월岳山 관리소장으로 전임.)